

강북신문 5면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도로명 주소 불편과 혼란 최소화해야”

강북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도로명 변경 노력도 주문

유군성 의원은 내년부터 전면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1910년부터 100년 동안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최근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물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 경우도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통계를 밝히고 “이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



유군성 의원

들의 사용실적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자기 집의 도로명 주소는 물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주소 찾기가 본업인 택배와 배달 직원들도 도로명 주소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앞으로도 홍보와 유지관리, 관련사업 확대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전문

가들의 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강북구

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불과 30일 앞둔 현재,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도로명 주소가 생활속 주소로 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전 세대에 배부되는 안내문이 빠짐없이 전달하여 시행 초기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북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명 중 대표적인 것이 ‘도봉로, 덕릉로, 노해로, 월계로, 삼양로길’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도로명이 하루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함께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